

팔리어 경전 역경도량 문 열다

부처님의 원음에 가장 가깝다는 팔리어 경전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역경도량이 문을 열었다.

(사)고요한소리(이사장 한기호)는 22일 활성 스님(고요한소리 고문), 현고 스님(조계종 기획실장), 지환 스님(승가대 학원장)을 비롯한 5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고요한소리 남원 역경원' 준공식을 가졌다. 지난 2000년 지리산 자락에 2만 2천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첫삽을 뜬 후 3년여의 공사 끝에 60여 평 규모의 법당과 2동의 요사를 갖춘 역경원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앞으로 역경원은 팔리어 경전 번역과 함께 이와 관련한 인력을 배출할 교육도량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부처님 해명의 진정한 계승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묻어야 하는 현실에서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이 시대에 구현하기 위한 도량으로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란다"는 도법(실상사 주지) 스님의 축사처럼, 근본불교의 가르침을 이 땅의 현실에 접목시키는 작업을 본격화한다.

이전에 역경원을 마련한 고요한소리는 팔리어 경전을 우리말로 옮기는 불사를 위해 87년에 설립된 단체로 현재 3천



◇팔리어 경전 번역과 인력을 배출할 고요한소리 남원 역경원 준공식이 22일 봉행됐다.

경전 번역, 인력 배출 교육도량 기능 담당

근본불교 현실 접목시키는 작업 본격화

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고요한 소리는 스리랑카 불자출판회에서 발행하는 '보리수일' 시리즈 40종

20만 5천여권을 보급했고 <법륜>(통권 15호)지를 발행해 왔다. 남원=윤재학 기자 yunjh@buddhapia.com

인천 황룡사 택지개발 위기 진정서 제출, 1일 결의대회

인천 황룡사(주지 무원)가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돼 천태종과 불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3월 28일자로 황룡사 부지를 포함한 인천 한들마을 지구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황룡사는 17일 건설교통부와 대한주택공사, 인천광역시청, 인천 서구청에 지정을 반대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한편, 5월 1일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천태종 250여 사암의 신도와 황룡사 신도 등 2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리는 결의대회에서는 택지지구 반대 결의문을 채택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황룡사 주지 무원스님은 "택지지구 지정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단식투쟁 등 가능한 모든 대응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천태종이 120여억원을 투입해 건립하고 있는 황룡사는 2001년 8월 착공해 2003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불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박봉영 기자



남,너 구별없는 우리는 한마음

강화 황련사 이옥순보살, 전동욱 거사

강화도 고려산 황련사는 외형적 규모는 가장 작지만, 내실 있기로 유명하다. 절에 나오는 불자들이 많고, 신도회가 주도해 사찰을 잘 운영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신도회의 중심에는 여 회장 이옥순(78·보현화보살과 남 회장 전동욱(66·분각)거사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두 회장은 신도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며 결속을 다지고 있다. 두 회장의 활발한 활동 이면에는 황련사와 주지스님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신심이 깃들여 있다. 이옥순 회장의 황련사와의 인연은 50년이

회장이 한결같이 보여준 관심과 노력이다. 한 번도 법회에 빠지지 않는 성실한 태도와 신도들을 잘 다독거리는 이옥순 회장이 78년 신도회장으로 뽑힌 일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제가 나이가 많으니 신도들이 잘 따라주는 것"이라고 겸손해 하는 이옥순 회장은 25년째 신도회장으로 있으면서 황련사 일이라면 밭벗고 나서신 신심 깊은 불자다.

5년 전 남여 신도회장 제도가 생기면서 새로 남 신도회장이 된 전동욱 거사. 예전에는 거사회를 이끌며 황련사 일에 나선다. 이제 는 연로한 보현화 회장의 빈자리까지 담당하

뜻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 역할

한결같은 관심, 노력, 성실함으로 열심



◇전동욱 남 신도회장(왼쪽)과 이옥순 여 신도회장(가운데) 임춘숙 회장(오른쪽)이 사중일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남은 세월을 거슬러 올라간다. 강화도로 시집은 이후 스물아홉살 되던 해 처음 황련사를 찾아 왔다. 강화도로 시집은 지 10년째 되던 해였다. 이옥순 회장은 현 주지 정봉스님이 76년 부임했을 때 쓰러져가던 법당에서 반갑게 맞았다.

주지 정봉스님은 아직도 그때의 기억을 잊지 못한다고 한다. 그래도 가장 고마운 점은 황련사가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이옥순

는 황련사의 수족 같은 일꾼 역할을 하고 있다. 황련사에는 전동욱 회장의 손을 거치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작은 일도 하나하나 챙기고 있다. 봉사모임인 연꽃회와 거사회의 역할 분담도 전동욱 회장의 일이다.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적절히 분배해 신도회를 이끌어가는 지혜를 발휘하는 두 회장의 노력으로 황련사는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박봉영 기자

송광사에서 장국영 49재 지낸다고?

제작사 요청, 장소·일정은 논의중

홍콩 영화배우 장국영(장국영)의 49재가 5월 30일 송광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영화 '이도공간' 수입사인 유니라인 코리아는 24일 "장국영의 49재를 5월 말 한국에서 열 계획"이며 "장국영의 애인으로 알려진 탕허더(唐鶴德), '이도공간'의 로치링(羅志良) 감독, 극중 상대역으로 출연했던 카레나 램(林家欣)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국영의 송광사 49재는 제작사인 홍콩 성호영화사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유니라인코리아는 장소와 일정에 대해 제작사와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 송광사의 한 관계자는 "한국의 수입사 측에서 송광사 대중스님을 만나 의사를 타진했다"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방글라데시에는 벵갈리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90% 이상이 불자인 중남인들은 이슬람 국가인 방글라데시에서 정치·종교적으로 박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동우기자

동해 불교신도회 찬불가 경연

600여명 참석, 1등은 대원사



동해 불교신도연합회는 12일 동해 해동사에서 찬불가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6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경연대회는 1부 법요식(사진), 2부 찬불가 경연, 3부 여흥시간, 4부 시상식 순으로 이어졌다. 시상식에서 1등은 대원사 합창단, 2등은 청련사 합창단, 3등은 삼화사 합창단이 수상했다. 동해지사장 해동스님

광주불교방송 8주년 기념법회

천운스님 등 1천여명 참석

광주불교방송(사장 이상진)은 개국 8주년을 맞아 23일 남도예술회관에서 조

계종 원로의원 천운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송광사 주지 현봉스님, 화엄사 주지 명섭스님, 대흥사 주지 도형스님, 백양사 주지 스님 등 1천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는 백양사, 향림사, 증심사, 한 마음선원 등 광주지역 8개 사찰 합창단의 축하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이상진 사장은 "호남불교 중흥의 가치를 내걸고 깨달음의 소리를 전해 온 지 8년을 맞았지만, 초발심의 자세로 더욱 정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천운스님은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자신을 속이지 않는 삶이 바르게 사는 것이며 이웃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법문했다.

주용직 광주지사장

김포시청·경찰서 불자회

중앙승가대 강당서 창립 법회

경기도 김포지역 공무원 불자회가 결성됐다.

김포시청과 김포경찰서 불자회는 16일 중앙승가대 대강당에서 창립법회를 열고, 중앙승가대 총주지장 월우 스님을 지도법사로 위촉했다. 회원 65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는 승가대 총장 종범스님의 법어, 김포시암연합회장 이정 스님과 김동식 김포시장의 축사 등으로 진행됐다. 김철우 기자

좁마족, 벵갈리인에 마을 피습

가옥 9채 전소, 가축·물건 약탈

90% 이상이 불자인 좁마인들이 방글라데시 군대와 '벵갈리'인들에게 공격을 당해 집 9채가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좁마 민족네트워크 한국지부 로벨 차크마 나니 사무국장은 따르면 "19일 방글라데시 군인들과 벵갈리인들이 방글라데시 카르가라치 지역에서 남쪽으로 약 35km 떨어진 뷰오차리 마을을 습습

해 집 9채가 전소했다"고 말했다.

로벨 사무국장은 "이번 사건은 좁마인들이 기존에 지어둔 집들을 철거하고 그들 땅에 새 정착자들이 증가하는 것을 중단시키기 위해 벵갈리인들에게 요청한 뒤 오후 11시 30분에 일어났다"고 전했다. 하지만 벵갈리인들은 이를 거절했고 좁마인들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당시 군인들은 좁마인들의 집을 에워싸고, 사람들을 집에서 나오게 한 뒤, 집을 불태웠다고 한다. 또 돼지를 불태우고 소나 값비싼 물건들을 약탈했다고 밝혔다.

김원우기자

우리 가족은 특별하다!!

가족을 사랑하는 특별한 방법! 지금 전화주세요!



국내최대 오가피 제사사 광 수석

수신토종오가피 수신택사토종오가피

월드컵 축구대표선수들이 먹었습니다. 아시아권계급 국가대표선수들이 먹었습니다. 직접 재배한 토종오가피만을 사용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국내최대오가피농장에서 생산합니다.

- 바로 수신토종오가피입니다.

이제 우리 아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수신토종오가피를 준비해주세요.

천사같이 소중한 우리 어린이를 위한 선물! 옛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오가피를 먹였습니다. 손주를 위한 할아버지의 고집으로 어린이들의 입맛에 맞춰 만든 - 수신택사 토종오가피.

우리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선택입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드립니다.

(02) 447-0047

불제 연등용 전선 (케이블)

사찰용 전구 3W, 5W, 10W. 전전지용 초. 정사초롱 및 손잡이대

통간격

22cm, 30cm, 50cm, 1M, 2M, 3M, 5M, 10M 기타주문



“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

사찰전구

- ▶ 불제대원 고주전구, 인제전구(정동)
- ▶ 종류 : 3W, 5W, 10W
-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갈 때까지 않으며 월라멘트(6배(특 월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필면 효과가 있다.

불제 건전지용 초

- ▶ 정사초롱 및 연등용으로 사용이 편리하며 4월초파일날 행사,

각종 연등행사 (탈놀이, 방앵) 등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광범이 있어 공연행사 등 이등에 적합합니다. (건전지 사용)



꺼지지않는 초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구입문의 (02) 2266-2634 ·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011) 630-7092
http://www.bulje.co.kr 주소 : 경기도 김포시 결포동 389-43